



조비오 신부



송기숙 전 교수



강신석 목사

민주화운동 산증인들 잇단 투병 몸져누워도 시대정신은 곳곳이

5·18민주화운동의 산 증인이자 평생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광주 시민사회의 대표적 원로 인사인 조비오(78) 신부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다. 특히 조 신부와 함께 민주화운동에 앞장 선 원로인 송기숙(81) 전 전남대 교수, 강신석(77) 목사도 노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9일 전주고 광주대교구 등에 따르면 조비오 신부가 20여 일 전 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조 신부는 현재 간 등에서 발견된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 거동조차 못한 채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조 신부가 평생을 봉사해온 소화자매원 관계자들과 큰 조카인 조영대 용봉동성당 주임신부 등이 병실을 지키고 있다.

병환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 신부가 입원 중인 병원에는 지역 인사들과 천주교 신자들의 병문안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고 신자인 윤장현 광주시장의 부인 손화정 여사도 이날 병원을 다녀갔다.

1969년 사제 서품을 받은 조 신부는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겪으면서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5·18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했고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 5·18기념재단 초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조 신부는 2006년 은퇴한 이후에도 지난 5월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

조비오 신부 말기암으로 입원
지역 인사 병문안 발길 이어져

송기숙 전교수·강신석 목사
노환 등 요양·치료 안타까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한
조비오 신부의 평소 소신

“
5·18정신 흐려지지 않고
민족의 햇불로 계승되길
5월단체·광주 시민사회
뜻과 힘 하나로 모아야
”

념식에 참석하고, 지난 7월 광주시가 개최한 지역 원로회의에 참석하는 등 최근까지도 사회활동을 해왔다.

조 신부의 보호자인 조영대 신부는 “조비오 문시늬(전주고 명예 고위 성직자)께서는 최근까지도 5·18은 고통받고 희생당한 이들이 독재정권에 항거한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이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한 햇불로 계승됐으면 한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

며 “늘 해온 그 말이 그 분이 병환 중에도 생각하고 있는 광주와 관련한 가장 큰 바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대 신부는 “다만 5·18의 대동정신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다”며 “(광주) 밖에서 우리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5월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얼마나 뜻과 힘을 모으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게 평소 그 분의 소신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광주가 하나 되어 5·18 정신을 지키길 바랐다”고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와 열려로 안부를 물어오는 광주 시민분들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광주YMCA 이사장과 5·18 기념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강신석(77) 목사는 병환중에도 “조비오 신부님과 가까이 지냈는데 안타깝다”며 “최근에 자주 뵈지 못했는데 꼭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신부와 함께 민주화의 산 증인인 ‘녹두장군’의 작가 송기숙(81) 전 전남대 교수도 노환으로 자택에서 요양 중이다.

송 전 교수는 ‘암태도’, ‘오월의 미소’ 등 선 굵은 역사소설을 써온 남도가 배출한 대표 작가이자,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지역의 대표 원로 인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공공체육시설 3곳 중 1곳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이 있는 광주 공공체육시설 3곳 중 1곳 이상이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검사를 마친 14개 공공체육시설 중 인조잔디 3곳, 우레탄 트랙 2곳에서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됐다.

상무시민공원 육상트랙, 상무시민공원 테니스장, 신암 근린공원 테니스장, 첨단 2주거 1호공원 게이트볼장, 승촌보

육상트랙이었다. 특히 우레탄 트랙에서는 2011년 KS 기준이 설정된 후 설치된 시설에서도 일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해당 시설 사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시설 이용이 불가피하면 손·발 씻기, 걸은 털기 등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안내했다.

부지포와 공기압축기 설치를 검토하는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운동장, 공원, 하천 내 공공체육시설 72곳 중 KS 기준 제정연도 이후 설치된 시설을 뺀 64곳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종합적인 검사결과는 다음 달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 정부가 우레탄 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이후 기준을 초과한 시설도 적절히 교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기금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

전과 40범 택시기사, 친구 태우고 강도행각

남부경찰, 2명 영장…교통안전공단 부적격 취업자 확인 부실

마약범죄 등 전과기록이 40건에 달하는 50대 택시기사가 지인을 택시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며 승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 자격 박탈 대상자였지만 교통안전공단 등 운전원 범죄경력 관리기관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하는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남부경찰청은 자신이 몰던 택시 승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택시기사 손모(55)씨와 손씨의 범행을 도운 친구 조모(56)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N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인 손씨는 조씨와 함께 지난 8일 새벽 2 시께 광주시 남구 노대동의 한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A(47)씨

의 머리와 복부를 2차례 때린 뒤 A씨가 타고 있던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다. 피해자 A씨는 범행을 당하기 직전 손씨 차량에서 내린 승객이었다.

경찰은 범죄 현장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지난 17일 오후 이들을 체포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운전기사 손씨가 지난 2015년 말 마약 범죄를 저질러 1년간의 실형을 산 전력이 있고 그가 무려 전과 40범의 상습 범죄자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 반사회성이 뚜렷한 범죄행위 전력자는 관련법상 택시운전 자격 박탈 대상인데도 택시에 범행을 공모한 친구를 태우고 버젓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택시를 운전할 자격이 없는 손씨가 택시운전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연간 2회 택시

자격 소유자들의 범죄 경력을 경찰에 조회 요청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교통안전공단 측의 부실한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12월, 올해 6월 광주지역 택시운전 자격 보유자 8000여명에 대한 범죄 경력을 광주지방경찰청에 조회요청하면서 손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확하게 안내하면서 부적격자 퇴출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 측은 손씨를 포함한 30여명의 대상자가 신상정보가 불명확해 범죄경력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전과기록이 30회를 웃도는 상태에서 지난 2013년 손씨가 관련법에서 정한 범죄 전력자가 아니란 이유로 적법하게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것도 시민들 법감정과 동떨어졌단 지적도 나온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연휴 뒤 쓰레기 수거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19일 누문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추석연휴 기간 쏟아져 나온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강진 마을 제각에서

남녀 숨진 채 발견

강진의 한 마을 제각(祭閣)에서 중년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강진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7시25분께 강진군 강진읍의 한 마을 무덤 옆 제각에서 A(60)씨와 B(여·5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경기도 광명 거주하고 있으며 전날 저녁 집에 들어오지 않아 미귀가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본적지인 마을 일대를 수색하다가 제각 안에서 이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의 목에 유리테이프가 수차례 감겨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유치원 통학버스에 치여

6살 여자 어린이 사망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이면도로에서 6살 여자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5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 이면도로에서 A(6)양이 성모(66)씨가 몰던 35인승 유치원 통학버스에 치였다.

A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성씨가 집 방향으로 길을 건너던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자전거 절도범 풀려나자 또 절도



○~자전거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노숙인이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자전거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서행.

○~1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강모(69)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 길가에서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지난 18일 검거됐다가 조사를 받고 풀려나지 2시간 만에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쳤다는 것.

○~강씨는 범행 현장에 자신의 자전거가 주차돼 있었는지도 옆에 있는 다른 자전거를 훔쳤는데, 경찰은 “강씨가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해 황당했다”고 설명.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1522·3396



숙박시설

감정가 38억7천만, 최저가 27억1천만
오룡동 3동 7층 / 대지 363평 건물 1200평



테마파크

감정가 15억
담양 / 대지 1073평, 건물 336



상가

감정가 6억 5천만
봉선동 / 대지 157평, 건물 78



전원주택

감정가 5억 4천만, 최저가 3억 7천만
진도 / 대지 347평 건물 60평

- ◆ **금융업소, 자동차전시장** 감정가 28억 2천만, 최저가 19억 7천만
남구 월산동 / 건물 387평 / 대남대로변 / 1,2,3층 (충별 입찰가)
- ◆ **수익형 상가 빌딩** 감정가 21억 3천만, 최저가 9억 6천만
동구 금남로 / 대지 172평 건물 249평 / 금남로 메인 도로점 / 3층
- ◆ **고급 팬션 및 주택** 감정가 6억 8천만, 최저가 4억 8천만
여수 / 대지 524평 건물 106평 / 해변 전망
- ◆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5천만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
- ◆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현 식당 영업중
- ◆ **전통한식당 및 웨딩공연장** 매매가 16억
담양 고서면 / 대지 1570평 건물 571평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상가** 매매가 15억
서구 치평동 / 대지 56평 건물 61평 / 우체국인근 / 2층
- ◆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 ◆ **토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 ◆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1114 김 주 성